


교수 초빙 지원서							
2007 학년도 1 학				접수번호	2007-1-0015		
지원부서	경영	지원학과	경영학과	지원교수	윤나연(이름) 부인 김자영		
성명	김영선	주된특목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직					
	이메일	사무실					
학력 사항 및 연구 실적							
구분	기간 (년 월 일)	학교명	학과명	세부전공			
고등학교	1988-03- - 1991-03-	서울특별시 서울고등학교					
전문대학	- - - - -						
대학교	1992-02- - 1996-02-20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회계			
	1996-03-02 - 1999-02-10	한국외국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회계			
박사	2004-02-01 -	국립전라대학교	경영학과 회계전공	국립전라대학교			
연구실적	연구수기 (년 월 일)	연구기관	연구내용				
연구실적 연구실적 연구실적	2006-09-12 - 2006-11-13	한국외국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실적 내용, 공동연구, 논문 발표, 저서				
	2006-10- - 2006-11-31	Newark University	Entrepreneur And/Or Business Executive Program				
연구실적 (공동연구 제외) 공헌한 연구실적 (공동연구 제외)							
구분	연구실적	연구실적	연구실적	연구실적	연구실적		
교과제목	2001-03-01 - 2004-02-28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연구실적		
교과제목	2004-02-28 - 2006-09-01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자영			
교과제목	2005-03-02 - 2006-02-28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산학협력사업	2003-12-02 - 2004-02-28	(주)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산학협력사업	2003-03-01 - 2006-03-31	(사)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교과제목	2000-03- - 2002-02-28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산학협력사업	1998- - 2002-02-28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연구실적 목록 (연구실적 제외)							
구분	연구실적 (년 월 일)	연구실적	연구실적	연구실적	연구실적		
수상	2005-05-01 - 2005-12-31	2005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10		
	2006-05-20 - 2006-10-30	2006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10		
	2006-05-25 - 2006-11-25	2006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11		
	2006-12-05 -	2006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수상	2004-09- -	2004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수상	2004-12- -	2004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논문발표	2006-03- -	2006 한국생산성연구회	한국생산성연구회	김자영			

그런데,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 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 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는 정식 MBA(경영학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결국 “Entertainment, Media & Technology” 는 MBA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만 수강 가능하며, 이 과정만 따로 분리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닌 것이다.

또한 2006년도 학사일정에는 MBA 과정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한 달 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한 “executive program” (소위 ‘최고위 과정’ 또는 ‘경영자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NYU Stern School 2006 ~2007 학사일정 중 2006년 가을학기 부분

2006-2007 ACADEMIC CALENDAR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FALL 2006	Graduate Day Classes	Graduate Langone (evening and weekend classes)	Undergraduate
1st day of Fall	Tues, Sept 5	Saturday, Sept 16	Tues, Sept 5
No classes	Mon. Oct. 2	Saturday, Sept. 23 Mon. Oct. 2	Mon, Oct. 9
Thanksgiving Break (no classes)	Tues, Nov 21, 6pm - Sun, Nov 26		Thurs, Nov 23 - Sat, Nov 25 <small>NOTE: Wed, Nov 22 runs on a Monday schedule.</small>
Last day of classes	Classes Meeting Twice a Week M/W = Dec 11 T/R = Dec 5 Classes meeting Once a Week M only=Dec 11 T only=Nov 28 W only=Dec 6 R only=Dec 7	Saturday, Dec 16	Wed, Dec 13 <small>NOTE: Tues, Dec 12 runs on a Thursday schedule.</small>
Final exam period	Wed, Dec 13 - Tues, Dec 19	No final exam period	Fri, Dec 15 - Fri, Dec 22

김건희 씨는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그가 2006년 10월에 NYU Stern School MBA 2년차 과정에 제공되는 세부 전공 과정인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을 수학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업무방해죄 등 중범죄를 구성한다. 실제 2014년 법원은 김 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NYU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졸업증을 위조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 4. 9. 선고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유
판 결		법 리 사 실
사 권	2014고민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피 고 인	A(남), 학원 원장(미국 소재 SAT학원)	1. 사문서위조
주 기	동족기문죄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
경 사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운영하는 'OOO'학원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평소
변 호 인		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의도하고,
판 결 선 고	2014. 4. 9.	2011.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명실 내외 회 학원 사무실에서 이
주 문		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OO'에게 피고인에 대한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만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OO'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을 사칭한 '2*** p***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뉴욕대학교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뉴욕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학교 졸업장 2*** 3*****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2*** 3*****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현안대응TF의 김병기 단장은 “김 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 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김 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하였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단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이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김 씨가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 대학 강사 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끝